

미술학석사 학위논문

# 개체의 반복을 주제로 한 도자조형연구

-흐름의 형태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Formative Ceramic Arts by Repetition of  
Individual

-Focused on the form of flow-

2017년 2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업대학원

도예학과

엄 주 영

# 개체의 반복을 주제로 한 도자조형연구

-흐름의 형태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Formative Ceramic Arts by Repetition of Individual

-Focused on the form of flow-

지도교수 이 정 석

이 논문을 미술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1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업대학원

도예학과

염 주 영

염주영의 미술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7년 1월

심사위원장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 목 차

요약 .....	i
표목차 .....	ii
도목차 .....	iii
작품목차 .....	iv
<b>I. 서 론 .....</b>	<b>1</b>
1. 연구배경 및 목적 .....	1
2. 연구방법 및 범위 .....	2
<b>II. 이론적 배경 .....</b>	<b>3</b>
1. 반복의 이론적 고찰 .....	3
1) 반복의 개념 .....	3
2) 반복의 유형 .....	4
3) 반복의 조형적 효과 .....	6
2. 반복 형태의 예술적 고찰 .....	9
1) 현대미술에서 반복의 개념과 의미 .....	9
2) 반복적 형태를 주제로 한 작품 사례 연구 .....	11
3. 흐름의 고찰 .....	14
1) 흐름의 일반적 정의 .....	14
2) 흐름을 표현한 작품사례 .....	14
<b>III. 작품 제작 및 해설 .....</b>	<b>16</b>
1. 작품계획 .....	16
2. 제작과정 .....	17
1) 전시계획 .....	17
2) 소지 .....	18
(1) 소지별 수축율 비교 실험 .....	18
3) 성형 .....	20
(1) 성형과정 .....	20
(2) 성형과정 .....	21

4) 접합 .....	21
(1) 내부소지와 외부소지의 접합과정 .....	21
5) 표면장식 및 유약실험 .....	22
6) 소성 .....	23
3. 작품해설 .....	24
<b>IV. 결론 .....</b>	<b>35</b>
참고문헌 .....	36
영문초록(Abstract) .....	38

## 요 약

제 목 : 개체의 반복을 주제로 한 도자조형연구

-흐름의 형태를 중심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반복된 일상 반복된 행위에 노출되어 있다. 반복 행위는 발전 없이 되풀이 되는 무의미한 행위로 인식될 수 있지만, 인간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의 하나이다. 인간과 더불어 자연의 모든 것들 또한 규칙적인 반복과 리듬을 만들고 있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며 자연과 더불어 인간을 둘러싼 모든 만물은 반복된다. 수 없이 반복되어지며 흐르고 발전하고 소멸되는 인간과 자연의 반복은 서로 밀접한 관계 속에 형성되어있다.

본 연구는 반복의 개념, 반복의 이론적 배경과 의미를 파악하고 반복이 현대 미술에서 미치는 예술적 고찰과 예술작품에 나타난 반복 형태의 가치를 살펴보고, 또한 하나의 개체로서는 가질 수 없는 군집된 힘을 유기적인 형태와 개체의 반복이 어우러진 조형적 반복의 밀도감과 방향감을 연구하여 보여 주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 배경에서는 반복의 이론적 고찰에 대해 조사하였다. 반복의 이론적 고찰에는 반복의 개념과 반복의 유형, 반복의 조형적 효과에 대해 조사하였다. 둘째 반복 행위의 예술적 고찰에서는 반복 행위가 현대 미술에 미치는 영향을 2가지 측면에서 연구하여 서술하였다. 셋째 반복적 형태를 주제로 한 작품 사례와 흐름의 고찰과 흐름을 표현한 작품사례를 조사하였다.

제작과정은 반복의 밀도감을 높이기 위해 반복되는 개체의 크기를 제한하였으며 반복의 흐름이 가장 잘 표현 될 수 있는 유기적 형태에 단순반복과 진행반복을 이용하여 개체를 반복시킴으로 흐름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개체가 반복됨으로 보여지는 밀도감과 방향감을 느낄 수 있었으며, 군집의 힘과 개체의 반복이 가지고 있는 조형적 가치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본인의 작업을 분석하여 앞으로의 작업방향에 있어 변화 가능성을 탐색하고 나아갈 방향을 연구 할 수 있었다.

## 표 목 차

〈표 1〉 소지선별을 위한 소축을 실험 I .....	18
〈표 2〉 소지선별을 위한 수축을 실험 II .....	19

## 도목차

[도1] 단순반복 .....	4
[도2] 교차반복 .....	4
[도3] 진행반복 .....	4
[도4] Gogh 「눈송이 곡선」 .....	6
[도5] Wacław Sierpinski 「삼각형」 .....	6
[도6] Roman Opalka의 제작과정 일부 .....	9
[도7] Andy Warhol 「Mercedes benz」 1954 .....	10
[도8] Andy Warhol 「Mao」 1972 .....	10
[도9] 김환기 「Untitled3-V-71#203」 1971 .....	11
[도10] 배세진 「고도를 기다리며」 2011 .....	11
[도11] Kusama Yayoi 「Lemon Squash」 1999 .....	12
[도12] Kusama Yayoi 「Dots Obsession」 2013 .....	12
[도13] 이도연 「Memory」 2013 .....	13
[도14] 김인 「124」 2014 .....	13
[도15] Bridget Riley 「물의 범람」 1964 .....	14
[도16] 김희태 「흐르다」 2012 .....	15
[도17] Yoshiro Kimura 「물결 잔」 1999 .....	15
[도18] 자연에서 보여지는 흐름의 예시 .....	15
[도19] 전시계획 스케치 .....	17
[도20] 모델링 실험 .....	20
[도21] 소지 꼬막밀기 .....	20
[도22] 내부 성형과정 .....	20
[도23] 외부 성형과정 .....	21
[도24] 반복 개체 .....	21
[도25] 이장 만들기 .....	21
[도26] 이장 사용 .....	21

[도27] 접합과정 .....	22
[도27-1] 반복의 접합과정 .....	22
[도28] 유약실험 1 .....	22
[도29] 유약실험 2 .....	22
[도30] 유약실험 3 .....	22
[도31] 전시전경 1 .....	34
[도32] 전시전경 2 .....	34

## 작품목차

[작품 1] Flow 1601 .....	24
[작품 2] Flow 1602 .....	25
[작품 3] Flow 1603 .....	26
[작품 4] Flow 1604 .....	27
[작품 5] Flow 1605 .....	28
[작품 6] Flow 1606 .....	29
[작품 7] Flow 1607 .....	30
[작품 8] Flow 1608 .....	31
[작품 9] Flow 1609 .....	32

# I.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반복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같은 일을 되풀이함 반복 훈련, 반복 동작, 성공과 실패의 반복 관련어휘를 보면 되풀이 윤회 재탕 중첩 등이 있다. 반복은 자연현상에서도 나타난다. 자연의 모든 것들은 규칙적인 반복과 리듬, 끊임없는 에너지의 순환으로 흐르며 변화한다. 인간 또한 삶이라는 굴레 안에서 수없이 많은 관계 속에 같은 생각, 같은 행동, 같은 말들을 되풀이 하며 살아간다. 이처럼 무의미하게 흐르는 일상속의 수없이 많은 반복된 의식과 무의식의 행동과 말들은 때로는 답답하고 무의미하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반복 그것은 분명 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커다란 힘과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반복된 일상 반복된 행위에 노출되어 있다. 하나의 개체로서는 가질 수 없는 군집된 힘은 반복이라는 작업을 통해 커다란 응집력과 힘을 가지게 된다. 비슷한 개체가 크기를 달리하여 반복이 되고 그로인해 점, 점중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며 율동감을 가진다. 이러한 율동감은 시각적 밀도감을 가지게 된다. 반복은 인간뿐 아니라 자연 스스로 만들어낸 파도, 바람, 구름 등에서도 끊임없이 흐르고 반복되어진다. 연구자는 물성을 가진 유기적인 흐름의 순간을 포착해서 그 형태를 작품의 조형적 이미지로 표현하였으며 그 흐름의 표면에 장식적 효과인 개체의 반복이 더해져 그 반복의 밀도감으로 인하여 흐름의 형태가 구현되어진다. 본 연구자는 반복의 개념, 반복의 이론적 배경과 의미를 파악하고 반복이 현대 미술에서 미치는 예술적 고찰과 예술작품에 나타난 반복 형태의 가치를 살펴 보고자한다. 연구자의 작품 중 형태는 자연의 물성에서 나타나는 흐름의 진행성을 나타내며 작품의 표면 장식이 되는 개체의 반복은 연속된 반복성을 나타낸다. 이를 통해 얻어진 흐름의 형태가 가지는 물질적 특성을 파악하고 작품에 구현하고자 한다.



## 1.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반복되는 단위개체의 크기는 1-1.5cm로 유기적 형태로 제한한다.

둘째, 반복된 단위개체를 일정한 방향으로 중첩하여 형태를 구현한다.

셋째, 작품의 형태는 반복의 진행방향성이 가장 극대화 될 수 있게 유기적인 형태로 제작한다.

넷째, 반복으로 인해 얻어지는 밀도감과 방향감을 흐름의 형태로 표현한다.

본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적인 형태가 되는 내부 성형 소지와 외부 성형소지의 종류와 선별에 있어서 수축율을 맞추기 위해 성형 소지의 소지별 수축율 실험을 한다.

둘째, Hand building 기법의 내부 성형 소지의 안정된 작업과 건조와 소성과정에서 형태 유지를 위해 성형 시 안쪽부분에 가래성형으로 뼈대를 만들어 가며 제작한다.

셋째, 단위개체를 Hand building으로 제작된 기물 소지에 일정한 방향으로 중첩하여 접합한다.

넷째, 효과적으로 반복의 밀도감을 표현하기 위하여 1230℃에서 무유소성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반복의 이론적 고찰

#### 1) 반복의 개념

반복(Repetition)이란 동일한 요소나 대상을 단위로 하여 둘 이상을 배열하는 것을 말한다.<sup>1)</sup>어떤 성질·형태·배치 등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시간 또는 공간상으로 동일한 패턴으로 되풀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동일한 요소나 대상 등을 두 개 이상 배열시켜 시선이 이동하여 상대적으로 동적인 느낌을 줌으로써 리듬감이 나타나게 하는 것으로, 시각적인 힘의 강약 효과라 볼 수 있다.

반복은 디자인의 구성원리 중 가장 기초적인 원리로서, 간단하고 효과적으로 미적인 통일을 이룰 수 있으며 따라서 어떤 디자인 구성원리보다 우선하여 계획 되어져야 한다. 반복은 획일적인 반복과 변화적인 반복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획일적 반복이란 완전한 반복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통일성이 강하고 단순하여 싫증이나 거부감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인간의 감정을 진정시키고 안정감을 준다.<sup>2)</sup>

변화적 반복, 즉 불완전한 반복이란 구성요소들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의 것들에 변화를 주어 반복시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같은 형태라도 크기나 색채 등을 변화시켜 반복하면 조화적인 반복이 되고, 이러한 반복은 구성의 의미를 강조하고 흥미를 유도한다.

조형에 있어서 반복은 시각적 통일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가장 널리 사용하는 방법으로 어떤 성질, 형태, 배치 등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시간 또는 공간상에서 동일한 패턴으로 되풀이 되는 것을 말한다.<sup>3)</sup>

반복에 의한 조형의 구성은 통일을 얻기 쉬우나 반면에 무미건조하고 단조로우며 따분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반복에 여러 가지 변화를 줌으로서 흥미를 부여할 수 있다.

반복은 좁은 의미에서 형태, 크기, 색채, 질감 등 단위 형태의 모든 시각 요소들이 같아야 한다는 것을 뜻하며 넓은 의미에서는 형태간의 색채나 질감이 같다면 반복이라고 할 수 있다. 반복이 이루어지는 형태는 서로가 유사성이나, 형태의 점이 등에 의한 관계로 이루어져야한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단위 형태로서 집단화 될 수 없기 때문이

1) 박대순(편). 1996. 「현대 디자인 용어 사전」, 디자인 오피스, p 124

2) 계루진. 2001. 「반복의 원리를 응용한 Brooch Design 연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3.

3) 이화진. 2006. 「점, 선, 면의 반복 구성을 이용한 가구디자인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8

다.<sup>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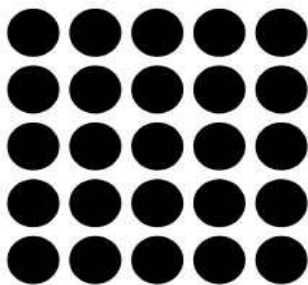
이러한 반복은 대상의 의미 내용을 강조하는 수단으로서 사용되기도 하기 때문에 대상의 표현을 변화시켜 사용하기도 한다.

형태의 반복은 우선 시각적인 면에서 화면에 리듬감 또는 연속성을 부여함으로써 정지된 화면에 시간적 요소를 개입시킨다. 동시에 화면이 외부의 공간으로 무한히 지속될 것 같은 확장 효과를 가져 온다. 반복적 형태는 화면의 표면을 따라 시각을 이동하게 하여 그림의 평면성을 주지시키는 역할도 한다. 한편 심리적, 정신적인 면에서는 제작자나 보는 이로 하여금 신체적 시각적 반복행위를 통해 명상 또는 무아의 경지에 접근하게 한다.<sup>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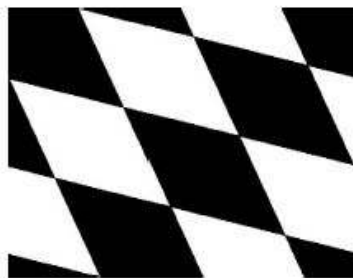
## 2) 반복의 유형

반복의 기본적인 유형들을 도표를 참고하여 살펴보고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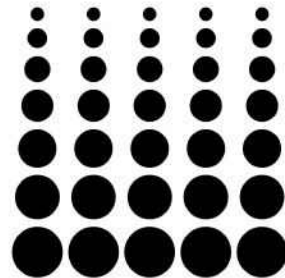
반복은 단순반복, 교차반복, 진행반복 3종류로 분류 할 수 있으며<sup>6)</sup> 그 외 무한반복을 예로 들 수 있다.



[도1] 단순반복



[도2] 교차반복



[도3] 진행반복

### (1) 단순반복

[도1] 단순반복은 가장 원시적이며 한 가지 모양으로 수직방향이나 수평방향으로 규칙적으로 배열되는 반복이다. 이러한 방식의 반복의 리듬감은 단조로울 수 있으나 통일감을 얻기 쉽다.

### (2) 교차반복

[도2] 교차반복은 2가지 이상의 모양이 차례로 교차되는 반복이다. 교차반복의 리듬

4) w.wong. 1981. 「입체디자인 원론」, 미진사, p. 14

5) 윤난지. 1992.3, 「형태반복의 방법과 의미」, 「월간미술」, p. 106-107

6) 오근채. 1991. 「입체조형과 새로운 공간」, 미진사, p. 70-71

감은 시각요소를 어떻게 반복시키는가에 따라 각각의 느낌은 매우 다를 수 있으며 가끔 속도의 차이도 느낄 수 있다.

### (3) 진행반복

[도3] 진행반복은 그라데이션(Gradation)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 반복법은 진행운동을 위하여 진행하는 방향으로 점이 되는 반복법이며 가장 화려한 느낌을 준다.<sup>7)</sup>

### (4) 무한 반복의 프렉탈

1975년 만델브로트(Mandelbrot)는 “프렉탈한 대상, 모양, 우연, 차원”이라는 책을 출판하였다. 이는 자연의 해안선이나 수목의 모양, 강의 모양 등을 시뮬레이트하기 위한 하나의 수학적 이상화로서 이것은 수학과 과학세계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만델브로트는 프렉탈에 대한 많은 연구를 처음 시작한 사람으로 자신이 생각한 영상, 차원 및 기하학에 대한 이름을 생각하고, 라틴어의 ‘부서지다’라는 뜻의 동사 ‘frangere’에서 파생한 형용사 ‘fractus’를 찾았다. fractus란 온전한 것이 아닌, 어중간한 뜻이다. 어원이 같은 영어 단어 ‘fracture’와 ‘fraction’의 어감도 적절한 것으로 생각했다. 만델브로트는 영어이면서 불어이며, 명사이자 형용사인 ‘fractal’을 만들어 냈다<sup>8)</sup>

프렉탈이란 지금까지 과학자가 사용해온 곡선이나 곡면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자연 속에 있는 복잡한 모양과 현상들은 밝히는 수단이라 할 수 있으며 전체와 부분에 내재하는 유사성을 만들어 내는 객관적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다. 모든 프렉탈이 자기유사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이 특성을 나타낸다. 또한, 프렉탈은 불규칙적인 성질을 가지며, 정수차원이 아닌 프렉탈 고유의 차원을 갖고, 비예측성과 비선형성을 갖는다.<sup>9)</sup>

프렉탈 도형은 부분의 부분 또 그 부분을 반복해서 확대해가도 도형의 구조는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다. 이것은 어느 부분이나 전체를 재구성 할 수 있는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음을 말한다.<sup>1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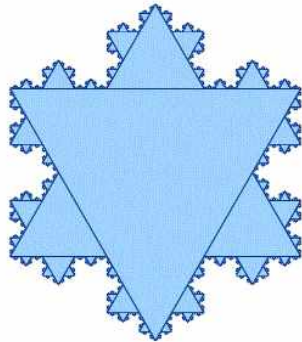
7) 오근채. 1991. 「입체조형과 새로운 공간」, 미진사, p. 70

8) James Cleick.1993. 「카오스:현대과학의 대혁명」 박배식 성하운 역, 동문사, p. 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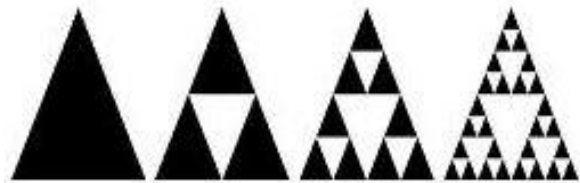
9) 신우식. 2004. 「회화작품에 나타난 프렉탈적 요소분석」, 목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 8 인용

10) 신우식. 2004. 「회화작품에 나타난 프렉탈적 요소분석」, 목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 9 인용

눈송이 곡선으로 알려진 고흐(Gogh. 1870-1924)의 [도4]와 시에르핀스키의 삼각형[도5]은 프랙탈 도형의 자기 유사성을 쉽게 인식 시켜주는 대표적인 그림이다.



[도4] Gogh  
「눈송이 곡선」



[도5] Waclaw Sierpinski  
「삼각형」

### 3) 반복의 조형적 효과

반복은 반복되는 요소의 성질이나 특징 및 기법적인 방법에 따라서 리듬과 연속성, 시간성, 공간성 등이 있으며 그 조형적인 효과는 전혀 달라진다. 본 연구자의 작업에서 이러한 반복의 시간성과 공간성은 중요한 조형적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한다. 반복하여 개체를 접합하는 과정의 시간성은 반복의 행위가 작품의 주체가 되어 형태의 변화를 유도한다.

#### (1) 리듬과 연속성

반복의 조형적 효과 중 가장 두드러지는 특성이 바로 리듬이다. 리듬은 율동감이 부여된 반복적 형상으로 조절된 운동감을 말한다. 미술에 있어서 리듬이란 하나의 요소 또는 여러 요소들의 질서 있고 규칙적인 흐름이며, 이러한 리듬의 주요 유형은 반복적, 변화적, 점진적, 유동적인 것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때 동일하거나 거의 비슷한 형상, 색채, 선, 방향 등의 반복이 율동을 형성하게 되는데, 유사한 모양을 소유한 공간들의 반복이나 색채의 반복 혹은 눈에 강하게 들어오는 형상들의 반복도 역시 리듬감을 지닌다.<sup>11)</sup>

11) Edmund Burke Feldman. 1979. 김춘일 역, 「미술의 구조적 이해」, p. 98

## (2) 시간성

행위와 형태의 반복에 의한 작품의 제작과정이나 작품 속에는 리듬감과 연속성에 의하여 정지된 화면에 시각적인 요소가 나타나게 된다. 현대미술에서는 같은 행위의 무한한 반복과 흔적, 축적 등의 방법으로 시간의 흐름을 표현한다. 이러한 시간성은 현대미술에 와서 예술작품의 결과뿐만 아니라 예술가의 행위나 작업과정도 중요시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작품에서의 모든 물리적 변화는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으며, 어떤 행위에서 다음 행위로 넘어가는 시간의 간격조차 작업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반복적인 행위와 작품은 정신적, 심리적인 면에서 그것을 실행하는 작가와 감상하는 관람자로 하여금 명상 또는 무아의 경지에 접근하게 한다. 또한, 구상적인 형태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형태가 가진 메시지를 강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sup>12)</sup> 본 연구자에게 있어 작은 단위개체를 붙여가는 반복과정은 지루하고 단순한 작업이지만 그 시간의 과정 안에서 흙의 물성을 몸으로 접하며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 (3) 공간성

공간의 표현에 있어서 원근법은 서구회화에서 공간표현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3차원적인 공간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었던 이 기법이 현대적인 요구에는 부응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새로운 공간에 대한 개념의 변화를 촉구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현대에 와서 반복적인 방법의 하나인 중첩에 의하여 시도되었다.

중첩(overlapping) 또는 중복(superposition)은 한 단위가 그것의 위에 위치한 다른 단어에 의하여 전체나 부분이 가려질 때 생기는 조형적 효과로써, 일반적인 시각의 사고로부터 벗어나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법의 하나이다. 이때의 시각적 조건은 같은 면에 연접(連接)한 단위들이 투영의 효과에 의하여 서로 구분되어 보이며, 공간적으로 다른 평면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야 적절하다. 즉, 중첩은 물질들의 부분을 제거하는 속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물질을 통합하는 속성을 가지게 된다.<sup>13)</sup>

일반적으로 형의 중첩은 겹쳐진 부분에 한하여 아래의 형이 보이지 않게 됨을 의미하지만, 조형원리로서 요구되는 시각적 조건에는 형의 전후 관계를 알 수 있고 형태 사이의 거리감과 공간감을 느끼게 한다. 중첩은 그 깊이감에서 대상물의 순서를 결정하는데 특별한 역할을 하며, 우리가 대상을 중첩된 것으로 볼 때 대상의 공간

12) 박은정. 2010. 「현대미술에서 보여지는 반복의 수행적 특성과 시간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 23

13) Rudolf Amheim. 1988. 김춘일 역, 「미술과 시지각」, p. 152

관계를 의식하게 된다.<sup>14)</sup>

또한 중첩은 동일한 색채를 겹쳐서 겹친 부분도 같은 색이 되게 하는 것, 서로 다른 투명한 색의 형을 얹게 겹쳐서 겹친 부분이 또 다른 제색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 그리고 불투명한 색채를 겹쳐서 겹친 부분이 가려져 보이지 않게 하는 것 등이 있다. 이렇듯 색의 중첩에 의하여 표현되는 화면의 미세한 깊이는 실제의 공간이 아닌 모호한 색채의 환영으로서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깊은 공간감을 형성한다.<sup>15)</sup>

---

14) Rudolf Amheim. 1988. 김춘일 역, 「미술과 시지각」, p. 326-327

15) 김국희. 2013. 「반복의 조형원리를 이용한 추상미술 표현지도 연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 10 인용

## 2. 반복 형태의 예술적 고찰

### 1) 현대미술에서 반복의 개념과 의미

현대 미술에서의 반복의 개념과 의미는 크게 2가지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반복의 개념적인 측면이 작품에 영향을 주어 반복 제작 과정의 행위가 작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는 것 이며 두 번째는 반복 형태를 작품에 등장시켜 이미지와 의미를 확장시키는 것이다.

현대미술에서의 반복의 개념과 의미를 알아보는 구체적 예시로서 행위의 반복은 로만 오팔카(Roman Opalka)와 이미지의 반복은 앤디 워홀(Andy Warhol)을 연구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도6] 로만 오팔카의 제작과정 일부

로만 오팔카 [도8]]은 작품의 제작 과정, 즉 행위가 개념에 중요한 요인으로 해석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1부터 무한에 이르는 연속된 숫자들은 회색 바탕에 흰색으로 쓰는 것을 반복하는데 그뿐 아니라 그 숫자들을 반복적으로 말하며 녹음하고 매일의 자신의 모습을 반복적으로 촬영한다.”<sup>16)</sup> 오팔카는 자신의 기억이 잊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반복적으로 쓰고, 말하고, 사진을 찍는다. 이러한 반복 과정은 자신을 존재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오팔카에게 반복 행위 과정은 매우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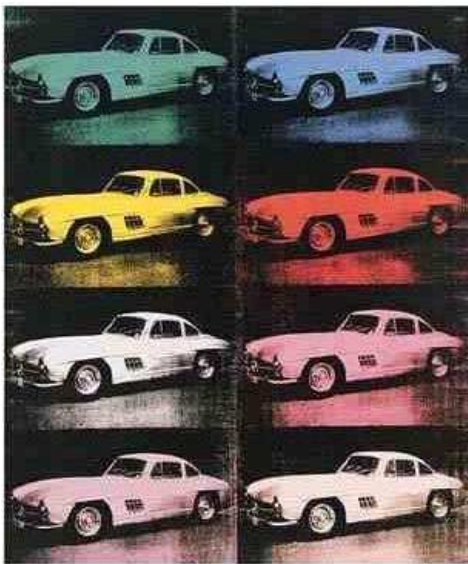
16) Tony Godfrey. 2002. 「개념미술」 전해숙 역, 한길아트, p. 156-1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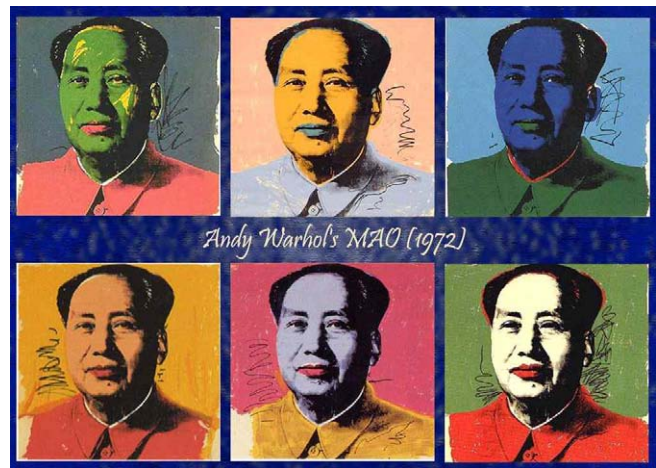
요한 요인이다.

할 포스터(Hal Foster)는 미술이 반복 논리에 대한 인식이 그것에 대한 표현들을 낳게 되는 것은 공업 발달에 따른 실질적인 기술적 생산으로 통합된 미니멀리즘과 팝아트<sup>17)</sup>에 이르러서 라고 말하였다.

앤디 워홀은(Andy Warhol, 1960-1987)<sup>18)</sup>은 대량 소비사회에 따른 여러 가지 이미지를 반복 형태를 이용해 작품화 하였다. [도7] 대중 스타의 이미지를 연속적으로 반복하여 작품화 하고 이러한 대중 이미지를 통해 대중 매체에 따른 기계적이고 비인간적으로 변해가는 현대인의 무감각을 지적하였다. [도8]



[도7] Andy Warhol  
「Mercedes benz」 1954



[도8] Andy Warhol  
「Mao」 1972

- 17) 팝아트는 영국에서 시작되었고 영국 미술평론가 로렌스 앨로웨이(Lawrence Alloway)가 1954년 광고 문화지에 기고한 '대중예술 popular art'를 지칭하기 위해 쓰였고, 이어 1962년 대중적 이미지를 구사하는 미술가들의 활동을 논하며 확대되었다. 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
- 18) 앤디 워홀은 1928년 피츠버그의 슬로바키아 이민자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카네기 공대에서 디자인을 공부한 후, 1949년에 뉴욕으로 이주했다. 그는 잡지 광고 등의 일에 종사하며, 50년대 후반에 이미 많은 돈을 모아 일찍이 성공을 거두었다. 그는 1962년과 1963년에 첫 번째 캠벨 수프 깡통 회화제작에 이어 「재앙Disaster」, 「마릴린Marilyn」, 「엘비스Elvis」 연작들을 제작했으며 캔버스에 실크스크린 기법을 도입했다. 1963년에는 이스트47번가로 작업실을 옮겨 '팩토리'라 명명하기도 했다.(Art since 1900, p. 486 참조)

## 2) 반복적 형태를 주제로 한 작품 사례 연구



[도9] 김환기  
「Untitled3-V-71#203」 19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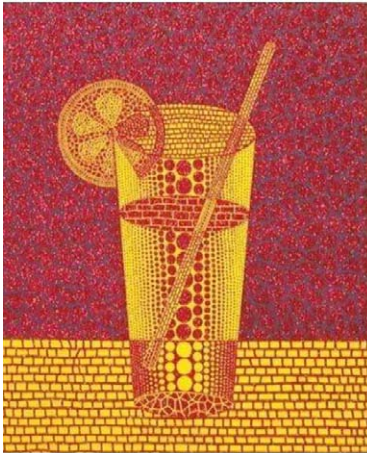
[도10] 배세진  
「고도를 기다리며」 2011

김환기의 작품 [도9]은 점면점화의 초기작이며 불교의 윤회 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다. 모든 조형물의 출발점인 점을 무심하게 반복하여 한 점 한 점 찍고 한번 둘러싸고 또 둘러싸서 큰 화면을 채워 갔다. 화면에 가득 찬 점 하나하나 점을 찍고 그 점을 한번, 두 번, 세 번 둘러싸가는 동안에 빛깔이 중첩되고 번져간다.<sup>19)</sup> 무한히 반복된 수없이 많은 점들은 어느 것 하나같은 것이 없다. 점과 점을 반복하여 찍어가는 동안 화폭에 번진 물감 자국은 예술가의 손놀림과 물감, 자연이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을 반복이라는 행위로 인해 보여준다.

배세진의 작품 [도10]은 사무엘 바케트의 희곡 「고도를 기다리며」를 모티브로 시간의 반복을 보여주는 작업으로 숫자와 조각으로 시간을 시각적으로 기록하는 일을 작가는 반복한다. 즉 작품의 단위개체에 직접 숫자를 기입함으로 관람자로 하여금 시간성을 느끼게 한다.<sup>20)</sup> 끊임없는 작가의 반복행위는 작가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게 해주는 반복과정이다. 배세진 작가에게 있어 작업은 존재자체를 확인시켜 줌과 동시에 시간의 무한 순환성을 보여주는 일이기도 하다.

19) 정영지. 2005. 「김환기 작품세계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54p 인용.

20) 배세진. 2012. 「반복 행위를 통한 시간의 기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3p 인용.



[도11] Kusama Yayoi  
「Lemon Squash」 1999



[도12] Kusama Yayoi  
「Dots Obsession」 2013

어릴 때부터 편집적 강박증을 앓아온 쿠사마 야요이는 미술 분야의 독특한 재능으로 누드 퍼포먼스와 해프닝, 이슈를 몰고 오는 도발적인 환경작업으로 미술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쿠사마는 1957년에 뉴욕으로 건너가 당시에는 그 어떤 미술가들보다 팝 아트의 양식에 가까웠지만, 여성이자 동양인이라는 점 때문에 주목 받지 못했다. 그러나 여성이 가지고 있는 날카로운 위트와 관찰력으로 남성위주의 팝 아트에 새로운 시선을 던졌다. 쿠사마의 가장 큰 특징은 일정한 패턴의 반복이다. 쿠사마는 10살 무렵부터 착란증세를 보였고 어느 날 자신의 집 식탁보의 꽃무늬가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환영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는 후에 쿠사마의 작품세계를 결정짓는 도트(Dot)패턴을 탄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도11]와 [도12]을 보면 동일한 요소나 문양을 끊임없이 반복, 집적, 증식, 확산시켜 자신의 편집증을 작업방법으로 연결하여 반복하고 증식되는 과정 자체가 편집증과 강박증이 치유와 소멸이 되는 순환의 연속이며 이는 곧 ‘자기망각 self-obliteration’의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sup>2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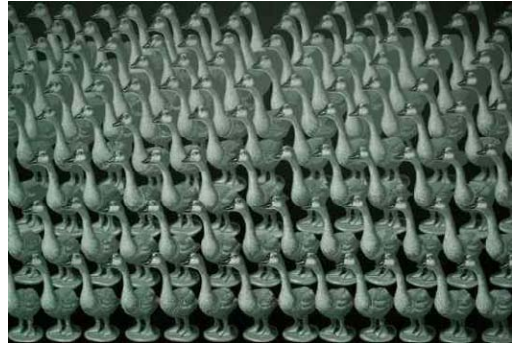
본 연구자에게 있어 반복이란 치유되고 소멸되는 흐름과 순환의 연속이기도 했다. 연구자에게 반복은 제자리걸음이 아닌 변화되고 발전되는 흐름과 순환의 연속인 것이다.

21) 정하임. 2013. 「선과 반복구성을 활용한 장신구 조형성 연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8p 인용.





[도13] 이도연  
「Memory」 2013



[도14] 김인  
「124」 2014

[도13] 이도연 작가는 자연의 생명력과 경이로움에 깊이 매료되어 작은 점과 가는 붓 터치 작업을 통해 무한한 자연의 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한 겹, 두 겹 캔버스를 덮는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 명상의 공간속으로 빠져들고, 자연의 무한함과 경건함을 발견하게 된다고 말한다.<sup>22)</sup>

[도14] 김인 작가는 친숙한 이미지를 오래된 기억이나 빛바랜 사진처럼 회색빛 반복 작업을 통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세계를 새로운 조형언어로 재해석한다. 작품 이미지의 반복속의 변형과 리듬을 보여주는 기법과 일상적 이미지들을 낮설게 결합시키는 데페이즈망 기법<sup>23)</sup>을 통해 경쾌한 팝적인 이미지를 구성한다. 또 인간의 물질 만능주의와 그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 문제 등을 반어적인 기법으로 표현하고 있다. 작가는 오랜 기억 속에서 상처로 남아 있을지도 모르는 무의식의 내면을 일상의 오브제를 끌어내어 반복된 이미지로 치유의 작업을 하고 있다.

22) 이동권. 2014. 「민중의 소리」, 문화면 인용

23) 데페이즈망 기법은 모순되거나 대립되는 요소들을 동일한 화면에 결합시키거나, 특정 사물을 전혀 엉뚱한 환경에 놓아 시각적 충격과 신비감을 불러일으키는 초현실주의 기법의 하나이다.

### 3. 흐름의 고찰

#### 1) 흐름의 일반적 정의

흐름은 자연 현상에서 관찰 할 수 있으며 바람, 파도, 소리, 물, 등 다양한 형태의 자연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끊임없는 에너지 순환으로 자연은 변화한다. 계속해서 생성과 소멸의 과정을 거치고 만물은 흐름으로써 생명을 얻는다. 무생물 역시 흐름으로 위치와 상태가 변화한다. 흐름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람과 파도와 같은 큰 규모부터 미시적으로 공기와 물의 이동과 같은 현상까지 다양하게 발견된다. 흐름의 과정 중 자연은 무수히 많은 조형적 미의 요소를 가지고 있고, 이를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에 집중한다면 쉽게 느낄 수 있다.<sup>24)</sup>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물이나 조형물은 각자 고유의 특정한 형태를 지지고 있다. 형태란 사물의 본질을 우리들의 눈에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는 형을 일컫는 것이며, 형태는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과 결합될 때 성공적으로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형태를 다루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형태를 통해 내적인 표현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sup>25)</sup>

#### 2) 흐름을 표현한 작품사례



브리짓드 라일리(Bridget Riley)<sup>26)</sup>의 [도15] 「물의 범람」은 선의 방향과 굵기의 변화로 흐름의 효과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형태와 부분사이에 점진적인 변화를 부여하여 흐름의 집중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sup>27)</sup>

[도15] Bridget Riley  
「물의 범람」 1964

24) 오현욱. 2016. 「스펀지를 이용한 자연흐름의 조형 표현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인용

25) Jean Luc Daval. 1981. 홍승혜 역, 「추상미술의 역사」 미진사, p. 41

26) 브리짓드 라일리(Bridget Riley)영국의 대표적인 옵아트 화가

27) 노주영. 1998. 「물의 흐름을 표현한 식물 패턴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인용, p.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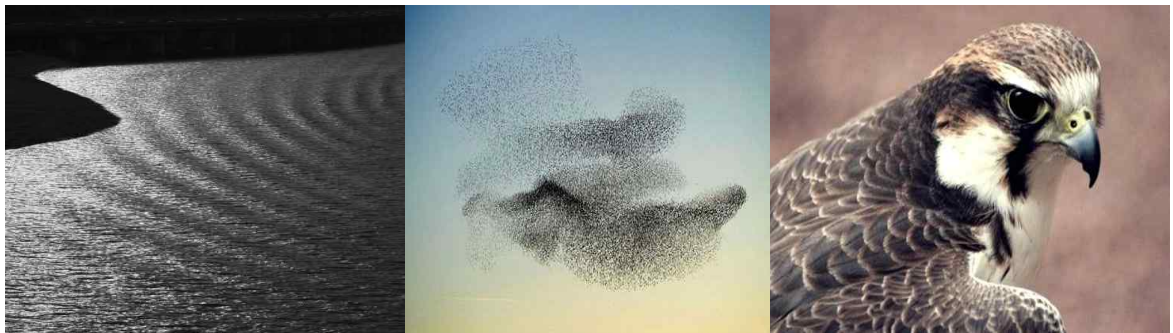
[도16] 김희태 「호르다」 2012



[도17] Yoshiro Kimura 「물결 잔」 1999

[도16]은 조각가 김희태의 목조 작품으로 일정한 두께의 나무판을 배열하고 선의 흐름을 효과적으로 살려 작업한 작품 중 하나이다.

[도17]은 요시로 키무라의 작품으로 선과 유약의 명암으로 인해 흐름의 점증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도18] 자연에서 나타나는 흐름의 예시

[도18]은 자연 현상에서 관찰 할 수 있는 흐름의 예시로 흐름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람과 파도와 같은 큰 규모로부터 미시적으로 공기와 물의 이동과 같은 현상까지 다양하게 발현된다. 흐름의 과정 중 자연은 무수히 많은 조형적 미의 요소를 가지고 있고 느낄 수 있다.<sup>28)</sup>

28) 오현욱. 2016. 「스펀지를 이용한 자연흐름의 조형 표현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인용, p. 11

### Ⅲ. 작품 제작 및 해설

#### 1. 작품계획

본 연구는 하나의 개체로서는 가질 수 없는 군집된 힘을 유기적인 형태에 개체를 반복하여 접합함으로써 개체의 반복이 주는 조형적 밀도감과 방향감을 연구하여 흐름의 형태를 표현하고자 한다. 작품의 형태는 액체류의 물성과 진행형의 이미지를 가진 유기적인 형태로 표현하였다. 따라서 전시공간과 작품의 공간적 효과가매우 중요함으로 전시공간을 고려하여 작품을 제작하였다.

작품계획은 다음 같다.

첫째, 작품 성형에 적당한 소지를 연구한다.

둘째, 반복되는 개체의 크기를 제한하여 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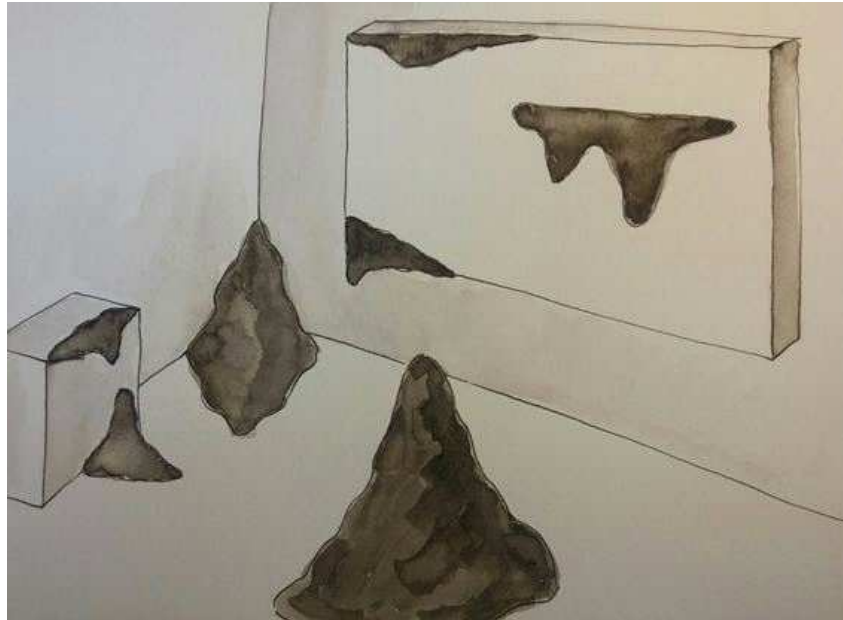
셋째, 작품의 형태는 흐름의 물성을 가장 잘 보여 줄 수 있는 유기적 형태로 단위개체의 반복을 통해 흐름이 극대화 될 수 있게 제작한다.

넷째, 전시 공간이 단순히 작품을 놓는 공간이 아닌 작품과 전시 공간이 하나라는 개념으로 작품을 계획한다.

다섯째, 내부 성형소지에 외부 성형소지를 반복하여 붙이는 과정에서 반복된 흐름의 결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제작방법과 소성방법을 연구하여 실험한다.

## 2. 제작 과정

### 1) 전시계획



[도19] 전시계획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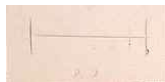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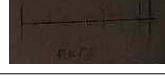


[도19]은 연구자의 전시계획 스케치이다. 유동적인 흐름의 물성 표현은 작품제작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전시공간에 맞추어진 형태가 요구되었다. 따라서 위와 같이 공간의 특성을 고려한 작품계획을 세우고 공간에 맞추어 작품을 제작 전시하였다.



## 2) 소지

### (1) 소지별 수축율 비교 실험

〈표 1〉 소지선별을 위한 수축율 실험 I

구분	사용소지	소지색상	수축율 비교
1	소노라화이트(미국조형토) 소성온도 1250℃		4-5%
2	소노라화이트(50%)+D1(50%) 소성온도 1250℃		6-7%
3	백조형토(50%)+D1(50%) 소성온도 1250℃		6-7%
4	백조형토 소성온도 1250℃		4-5%
5	D1 소성온도 1250℃		12%
6	블랙마운틴(미국 조형토) 소성온도 1230℃		5-6%
7	흑토(50%)+블랙마운틴(50%) 소성온도 1230℃		6-7%
8	흑토(50%)+흑토 샤모트(50%) 소성온도 1230℃		7-9%
9	흑토 소성온도 1230℃		10-12%

본 연구자에게 있어 소지 선별 과정은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였다. 내부소지와 외부소지가 서로 다르므로 건조와 소성시 안정적인 형태와 수축율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표 1〉에서와 같이 흰색 소지와 검은색 소지로 나누어 각 소지별 소성결과와 수축율을 비교 실험하여 보았다. 검은색 소지로는 6의 블랙마운틴(조형용), 9의 흑토, 8의 흑토와 흑토를 건조시키고 가루를 내어 1050℃로 초별한 후 흑토와 50:50으로 섞어 수축율을 실험하였고, 7의 흑토와 블랙마운틴을 50:50의 비율로 섞어 실험하였다. 1230℃로 소성한 검은색 소지 중 수축율이 가장 심한 소지는 흑토였고 수축율의 차이를 크게 보이지 않았던 소지는 블랙마운틴이었다. 검

은색 소지의 실험 결과 내부 성형소지로는 <표1>의 7번 흑토(50%)+블랙마운틴(50%) 소지가 큰 작품의 성형과 건조, 소성에 안정적이고 가장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흰색소지의 소성온도는 1250℃로 흰색소지로는 1의 소노라화이트(미국조형토), 2의 소노라화이트 (50%)+D1(50%), 3의 백조형토(50%)+D1(50%), 4의 백조형토, 5. D1을 사용하였고 총 5가지 소지 중 가장 많은 수축율을 보여준 것은 D1소지였으며 수축율이 크게 차이가 없었던 소지는 소노라화이트 였다. 흰색의 성형 소지 중 내부 성형소지로 적합한 소지는 <표 1>의 2번 소노라화이트(50%)+D1(50%) 소지가 큰 작품의 성형과 건조, 소성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에 사용한 소지 중 반 복되어 붙여지는 개체에 사용할 외부소지로 조형토는 적합하지 않았다. 조형토에 포함된 모래알갱이들이 작품표면의 질감과 결에 방해를 주고 시각적 분산을 유발하는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단일 소지만으로 작품표면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표 2〉 소지선별을 위한 수축율 실험 II

구분	사용소지	소지설명	수축율 비교
1	 1      2      3	1.소노라화이트/D1 2.D1+소노라화이트/D1 3.백조형토+D1/D1 소성온도 1250℃	사용소지 1,2,3, 모두 수축율 5-6%로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1      2      3	1.블랙마운틴+흑토/흑토 2.블랙마운틴/흑토 3.흑토샤모트+흑토/흑토 소성온도 1230℃	사용소지 1,2,3, 모두 수축율 5-7%로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음으로는 <표 1> 소지선별 실험을 통해 각 소지별 수축율의 차이를 확인하고 수축율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 소지를 선택해 실제 작품제작과 같은 성형방법과 소성온도로 <표 2> 소지선별 실험을 해보았다. 내부에 쓰이는 소지에 샤모트가 함유되어 있는 소지를 사용함으로써 큰 작품의 제작 시 성형의 안정성과 건조, 소성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흰색소지는 전시공간에 어울리지 않고 적합하지 않아 검은색 소지로만 작품을 제작하게 되었다. <표 1> 과 <표 2> 의 실험 결과를 바

탕으로 내부 소지로는 흑토(50%)+블랙마운틴(50%)의 비율로 만든 샤모트가 함유된 조합 소지를 사용하였고 작품의 표면이 되는 외부소지는 흑토를 사용하여 작품의 성형과 건조, 소성에서 안정성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작품의 질감이 되는 외부와 내부 소지의 수축율을 맞추고 작품을 제작 진행함에 있어 건조와 소성 과정이 용이하였다.

### 3) 성형

#### (1) 성형과정



[도20]은 작품을 제작하기 전 이장을 나무판 위에 흘려보고 그 모습을 모델링하여 도판 작업에 응용, 제작하였다. 반 부조의 느낌을 최대한 살리는데 중점을 두었다

[도20] 모델링 실험



[도21] 소지 꼬막밀기



[도22] 내부 성형과정

[도21]는 흑토와 블랙마운틴을 50:50으로 섞어 꼬막밀기 작업을 한 후 가래성형으로 [도22]에서와 같이 내부성형 작업을 진행하였다. 작품의 크기가 커질수록 작품의 형태유지가 가장 중요했으므로 가래성형 시 작품안쪽에 지지대를 만들고 완충체를 넣어 가며 형태 유지에 특히 신경을 써가며 작업하였다. 내부 성형 시 톱니 스크래퍼로 표면에 질감을 주면서 작업하였다. 외부성형 과정이 남아있었으므로 기물이 건조되지 않도록 수분을 맞춰가며 작업해야 했다.

## (2) 성형과정



[도23] 외부 성형과정



[도24] 반복 개체

[도23]과 [도24]는 반복되는 개체를 만드는 작업으로 반복 작업의 편리함을 위해 흑토를 일정량 가래성형으로 통에 보관하고 필요시 꺼내 반복 개체를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반복되는 개체의 크기는 1-1.5cm를 넘지 않는다. 흑토가 빠른 시간에 건조해지는 단점이 있으므로 스펀지 위에서 사용할 양 만큼만 만들어 놓고 수시로 분무기를 뿌려가며 작업하였다.

## 4) 접합

### (1) 내부소지와 외부소지의 접합과정



[도25] 이장 만들기



[도26] 이장 사용

[도25]과 [도26]는 접합에 필요한 이장을 만들어 사용하는 작업 과정이다. 흑토를 건조해 가루를 만들고 체에 거른 후 필요한 만큼 물과 섞어 사용하였으며 접시에 담아 반복 개체 하나하나에 이장을 묻혀가며 톱니 스크래퍼로 긁어 질감을 낸 내부 성형소지에 붙여 나가는 과정을 [도27] 에서와 같이 작업하였다. [도27-1]은 반복의 흐름에 중심을 두고 깊이감이 있는 부분에서는 진행반복기법을 사용하였고 형태적 변화와 굴곡의 변화가 없는 부분에는 단순반복기법을 사용하여 작업하였다.





[도27] 접합과정



단순반복



진행반복

[도27-1] 반복의 접합과정

## 5) 표면장식 및 유약실험



[도28] 유약실험 1



[도29] 유약실험 2



[도30] 유약실험 3

[도28]과 [도29]은 작품표면에 유약작업을 했을 때 표면의 질감과 반복흐름의 결에 어떠한 변화를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진행한 유약실험이다. [도28]에 사용한 유약으로는 투명유, 백매트, 흑매트, 망간골드를 사용하여 실험하였고 실험결과 유약으로 인해 오히려 작품 표면의 반복된 결과 흐름이 묻히고 살아나지 않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도29]은 투명유, 망간골드, 백매트, 흑매트, 철매트의 유약을 사용해 표면 질감을 실험해 본 결과 [도28]에서와 같은 실험 결과로 유약이 오히려 작품표면의 질감과 반복의 결을 살리지 못하고 방해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도30]과 같이 유약 작업을 하지 않고 흑토 본연의 색으로만 작품 표면을 구성하였다.

## 6) 소성

내부소지(블랙마운틴50%+흑토50%)의 일반적 소성온도는 1250℃ 이고 외부소지(흑토)의 일반적 소성온도는 1230℃ 이다. 연구자의 작품은 내부소지(블랙마운틴50%+흑토50%)와 외부 소지(흑토)의 소성온도가 서로 달랐으나, 표면의 질감이 되는 외부소지에 소성온도를 맞춰 1230℃ 단별소성으로 작업을 진행하였다.

### 3. 작품 해설

#### [작품 1] Flow 1601

본 연구자의 모든 작업은 전시장의 공간성을 작품과 고려하여 제작하였다. 작품을 갤러리에 전시한다는 개념보다는 전시공간과 작품이 하나라는 개념으로 설치하였다. [작품1]은 도벽 작업으로 벽에서 유기적인 모양이 흘러내리는 형태의 작품으로 실제 작업 전에 이장을 나무판에 흘리는 실험을 하여 흐르는 모양을 모델링하여 제작하였다.



#### [작품 1] Flow 1601

770x410x40mm

Hand Building

흑토, 블랙마운틴

반 부조 형태가 최대한 잘 표현될 수 있도록 내부 성형과정에서 가래성형으로 지지대를 만들고 완충제를 넣어 가며 작업하였으며 반복의 형태 중 단순반복과 진행반복을 사용하여 작업을 진행하였다. 개체가 반복되고 증식되는 외부 성형과정에서 오른쪽에서 시작된 반복의 흐름이 왼쪽 하단부에서 끝나도록 작업 하였다.

[작품 2] Flow 1602

유기적 형태가 마치 흘러내리기 직전에 응집해 있는 물성을 내제 시켜 작업을 진행하였다.

밑면에서 시작된 반복의 방향성과 흐름이 반대편으로 진행하여 형태가 완성되도록 작업하였으며 반복의 흐름을 강조하기 위해 단순반복기법으로 작업을 진행하였다. Flow 시리즈 중 가장 정적인 흐름을 표현한 작품이다.



[작품 2] Flow 1602

330x200x170mm

Hand Building

흑토, 블랙마운틴



[작품 3] Flow 1603

벽면에 도판 형식으로 설치된 작업으로 유기적 형태의 물성과 흐름을 최대한 표현하기 위해 형태와 흐름에 중점을 두어 작업하였다. 단순반복기법과 진행반복기법을 사용하여 작업하였다. 응집해 있는 물성의 밀도가 약해져 있는 깊이감이 있는 부분의 형태 구현을 하기 위해 진행반복기법을 사용하여 유동적 형태를 표현하였다.



[작품 3] Flow 1603

500x250x130mm

Hand Building

흑토, 블랙마운틴

[작품 4] Flow 1604

[작품 2]와 유사한 작업으로 유기적 형태가 마치 흘러내리기 직전에 응집해 있는 물성을 내제 시켜 작업을 진행하였다.

윗면에서 보았을 때 반복의 결이 부각되도록 단순반복기법만으로 작업을 진행하였다.



[작품 4] Flow 1604

300x250x170mm

Hand Building

흑토, 블랙마운틴

[작품 5] Flow 1605

전시대의 형태적 특징을 고려하여 작품을 제작 표현하였다. 전시대와 작품이 하나의 작품이라는 개념으로 작업을 진행 하였다.

반부조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 내부 성형 시 지지대를 만들어 가며 작업하였다.

내부 성형 시 90도의 각도를 가진 나무 박스위에서 성형해 가며 작업하였고 외부성형 시 오른쪽에서 시작된 개체의 반복된 흐름이 왼쪽 부분에서 완성되도록 표현하였다. 진행 반복기법을 사용하여 작업하였다. 유기적으로 흐르는 동적인 형태로 표현하였다.



[작품 5] Flow 1605

500x150x40mm

Hand Building

흑토. 블랙마운틴

[작품 6] Flow 1606

벽에 전시하기 위해 만든 도벽 작업으로 실제 이장이 흘러내리는 실험을 통해 작품을 표현하였으며, 반복되는 개체의 흐름 또한 위에서 아래로 진행되도록 방향성을 주어 작업하였으며 단순반복만으로 작업을 진행하였다.



[작품 6] Flow 1606

360x730x70mm

Hand Building

흑토, 블랙마운틴

[작품 7] Flow 1607

전시대의 상관에 전시할 목적으로 전시대의 형태적 특징을 고려하여 작품을 표현하였다. 내부성형 시 90도의 각도를 가진 나무 박스위에서 성형해가며 작업하였고 반복의 요소 중 진행반복기법을 사용하여 작업하였다. [작품5]보다는 반부조의 형태가 더 도드라져 보이며 이로 인해 [작품7]은 동적인 이미지와 정적인 이미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작품이다.



[작품 7] Flow 16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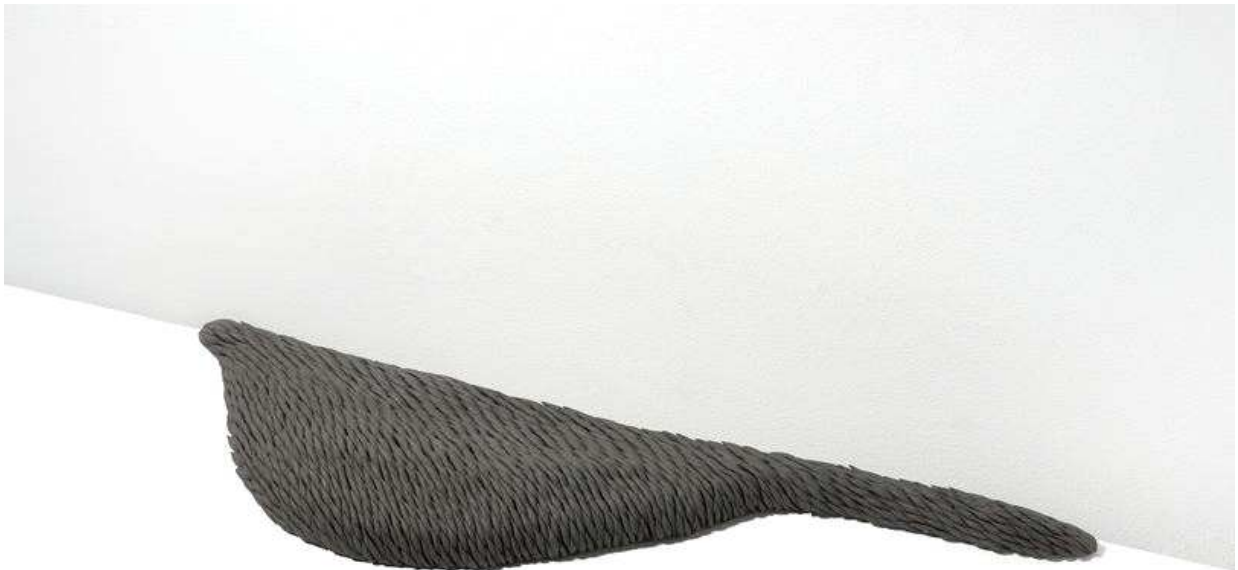
320x250x90mm

Hand Building

흑토, 블랙마운틴

[작품 8] Flow 1608

전시공간의 벽면 윗부분에서 흐르듯 떨어지는 형상을 의도하며 제작하였다. 반 부조 형태의 입체감을 살리기 위해 성형 시 내부에 흙으로 지지대를 만들고 완충제를 넣어 가며 작업하였다. 반복의 기법 중 진행반복기법을 사용하여 작업을 표현하였다.



[작품 8] Flow 16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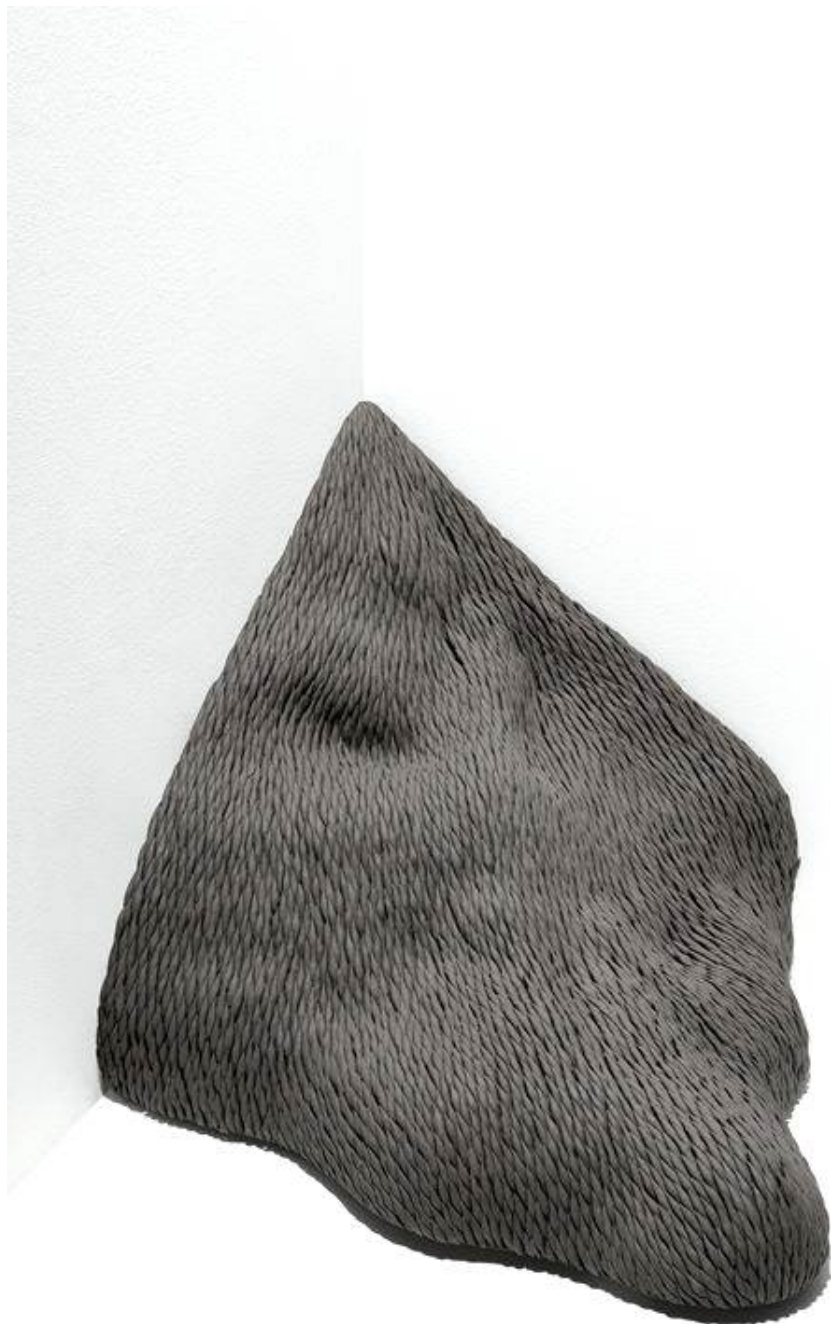
700x220x50mm

Hand Building

흑토, 블랙마운틴



[작품 9] Flow 1609



[작품 9] Flow 1609

640x800x400mm

Hand Building

흑토, 블랙마운틴

[작품 9]는 전시공간의 모서리 부분을 활용한 작품이다. 유기적으로 흘러내리는 형태가 전시공간의 모서리 부분에서 흐르듯 베어 나오는 형태를 의도하여 전시 공간과 작품이 동떨어진 것이 아닌 하나의 작품이라는 개념으로 작업을 진행 하였다. 작품의 성형과 건조, 소성시 안정된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작품 내부에 지지대를 만들어가며 작업하였고 반복적 흐름을 극대화하기 위해 단순반복기법과 진행반복기법을 사용하여 작업하였다.



## 전시 전경



[도31] 전시전경1



[도32] 전시전경2

## IV. 결론

인간은 살아가는 가는 동안 수없이 많은 의식과 무의식의 반복, 행동의 반복을 시간의 굴레 안에서 반복하며 과거에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간다. 반복은 발전 없이 되풀이 되는 무의미함이 아닌 예술적 행위를 통해 재탄생되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반복의 흐름을 주제로 탐구하였으며, 흐름의 형태적 특성을 극대화 하기위해 유기적 형태를 전제하여 제작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제작과정에 있어 각 소지별 실험과정은 소지의 수축율과 소지별 장단점을 실험하여 작품제작에 맞는 수축율을 가진 소지를 선택하여 작품제작에 응용하였다.

둘째, 반복의 유형을 작품에 표현한 결과 개체 하나로는 약하지만 반복됨으로 군집의 힘과 밀도감과 방향감을 표현 할 수 있었다.

셋째, 작품의 성형과정에서 내부소지와 외부소지가 다르므로 접합과 건조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습도와 접합방법, 건조과정이 작품 표면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자연적 소재인 흙의 물질적 특성으로 유기적 형태의 표현이 용이 하였으며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장소성을 고려한 작품제작의 결과 작품의 표현력을 더욱 강조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자는 작품의 작업과정을 진행하면서 수도 없이 많은 작은 개체를 반복하여 붙여 나가는 과정이 단순하고 지루해 보이는 반복 작업의 연속이었지만 작업하는 내내 연구자 본인의 내면과 마주하는 시간의 연속이었으며 연구자가 처해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에서 해방되는 시간이었다. 그 어떤 작업보다 정직하며 발전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작품의 크기에 대한 아쉬움이 많았으나 앞으로 전시공간을 더욱더 활용하고 작품의 크기와 형태를 연구하여 반복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단행본

- [1] 박대순(편). 1996. 「현대 디자인 용어 사전」, 디자인 오피스.
- [2] w.wong. 1981. 「입체디자인 원론」, 미진사.
- [3] 윤난지. 1992.3, 「형태반복의 방법과 의미」, 「월간미술」.
- [4] 오근채. 1991. 「입체조형과 새로운 공간」, 미진사
- [5] Edmund Burke Feldman. 1979. 김춘일 역, 「미술의 구조적 이해」.
- [6] Rudolf Amheim. 1988. 김춘일 역, 「미술과 시지각」.
- [7] James Cleick.1993. 「카오스 : 현대과학의 대혁명」 박배식. 성하운 역, 동문사.
- [8] 김승환. 1993. 「프렉탈」 서울공간.
- [9] Tony Godfrey. 2002. 「개념미술」 전혜숙 역, 한길아트.

### 학위논문

- [10] 계루진. 2001. 「반복의 원리를 응용한 Brooch Design 연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11] 이화진. 2006. 「점, 선, 면의 반복 구성을 이용한 가구디자인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12] 박은정. 2010. 「현대미술에서 보여지는 반복의 수행적 특성과 시간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13] 김국희. 2013. 「반복의 조형원리를 이용한 추상미술 표현지도 연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14] 신우식. 2004. 「회화작품에 나타난 프렉탈적 요소분석」, 목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15] 이도연. 2011. 「생명의 공간 : ‘반복적 수행’을 통한 생명력 부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16] 배세진. 2012. 「반복 행위를 통한 시간의 기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17] 정하임. 2013. 「선과 반복구성을 활용한 장신구 조형성 연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18] 오현욱. 2016. 「스펀지를 이용한 자연흐름의 조형 표현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19] 노주영. 1998. 「물의 흐름을 표현한 직물 패턴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인용

#### 학회논문

- [20] 강화영. 2011. 「자연의 형상을 이용한 반복패턴연구 : William Morris의 작품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예술대학 공예과 박사과정.

#### 웹사이트

- [21] 네이버, <http://www.naver.co.kr>  
[22] 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  
[23] Ceramic Art Association, <http://www.ceramicartswa.asn.au/>

# Abstract

## A Study on the Formative Ceramic Arts by Repetition of Individual -Focused on the form of flow-

Yeom, Ju Yeong

(Supervisor Lee, Jung Suk)

Dept. of Ceramic Arts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People live doing the repetitive pattern of behavior in the daily routine. The repetitive behavior might be perceived as useless, however, it can be a significant factor to decide their future. Nature as well as people makes regular pattern and rhythm. People and nature have repeated the cycle of creation and extinction in the intimate relationship.

This study examines the concept, theoretical background and meaning on repetitiveness, and the value of repetitive pattern in the art works. And it aims to show the power of clusters through the dense repetition of each individual unit of organic forms. An individual unit cannot effectively reflect the power of cluster or repetitiveness.

The order of the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concept, types and effect of repetitiveness is examined in terms of theory; second, the influence of repetitiveness on the modern art are suggested by the two aspects; third, the pieces of art with the theme of repetitiveness and with meaning of flow are examined. The size of a repetitive unit is limited in order to highlight the density of repetition. The flow of repetition is described through the simple repetition and sequential repetition to emphasize repetitiveness.

The study has revealed the power of clusters through the repetition of unit, and the density and directivity through the flow of repetition. It has identified the potentiality of repetition of unit as formative art. And it has provided the direction of working for art, and has showed the potentiality of development in the future.